

Project Subject :

맷 음 말

Team

폴짝폴짝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의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기획부터 개발, 문서 작업 마무리까지 이르면서 계획에 따른 착실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빠르게 어떤 부분은 꼼꼼히 진행하는 완급 조절이 필요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여러 번 경험을 거쳐 우리 모두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땀길 걸 다 땀기고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는 것 자체 역시 필요했었다.

이 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품고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히다보니 어느새 앞서 했던 걱정과는 달리 계속해서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달릴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당연히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한 파트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 시간이 소요된 적도 있고 말은 파트에 대해 감을 못 잡을 때도 있었다. 또 시간을 많이 들여 오류를 찾고 보니 허탈한 실수 였던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피드백, 브레인스토밍, 격려와 같은 커뮤니케이션들을 통해 무사히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올 수 있었다.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모두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걱정을 줄이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지닌 개발자가 되기로 했다.